

#1

2024년 6월 20일

푸 리 아

문화유산,
한국의 역사를
담고 있는
소중한 자산.

@PJHS44



목차

01

서울 4대 궁궐의 역사

건청궁, 명성황후 시해 사건

5

흥복헌, 한일병합조약

창경궁, 사도세자

6

덕수궁, 만조반정

문화유산을 둘러싼 갈등

춘천시 레고랜드 vs 문화유산 보존

7

물납토성 유적 보존 vs 대중의 편의

8

02

03

문화유산에 담긴 과학

석굴암, 디지털 복원

9

중성자 영상 기법

10

엑스바우어 분광기법

문화유산으로 보는 경영

ODA 프로젝트

11

판화호텔앤리조트~2023문화유산 캠페인 개최

12

LG Household&Healthcare

04

05

K-문화

산수인물화,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다

13

어진, 임금의 초상화

14

풍속화

가야금

15

K-pop

잡지를 시작하며...

안녕하세요. 저희는 포항제철고등학교 학생들이자 한국 문화유산과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에 대해 다루는 동아리, 퓨리아입니다.

문화유산은 우리나라의 정체성, 역사, 그리고 가치를 이해하는 데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문화유산은 과거와 현재를 연결해 주며 현재와 미래에 대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또 미래 세대에게 전통과 역사를 알려 줍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이 잡지를 통해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의 문화 유산과 역사의 흐름, 그리고 전통과 혁신이 교차하는 방식에 대해 깊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잡지는 역사, 예술, 과학, 경영 등 다양한 관점에서 한국의 문화유산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노력이 담겨 있는 이 잡지를 통해 대한민국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각 장소에는 어떤 숨은 이야기가있을까?

역사 / 김서현, 김소영



<경복궁>

경복궁, 명성황후가 시해된 곳

경복궁 안에는 또 다른 궁인 '건청궁'이 존재한다. 이 궁은 1873년(고종 10년) 경복궁 중건이 끝난 뒤 고종이 흥선대원군 몰래 궁궐의 북쪽에 사비로 지은 '궁 안의 궁'이다. 실제로 1873년부터 고종은 흥선대원군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직접 나라를 다스리기 때문에, 건청궁은 아버지인 흥선대원군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정치적 행보라는 해석이 있다. 1876년 경복궁에 큰 화재가 난 이후, 건청궁은 조선의 정체가 결정되는 중요한 장소가 된다. 그러나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의 세력이 강해지고 '건청궁'은 비극적인 장소로 전락한다. 당시 조선에서는 김홍집을 비롯한 친일파들이 득세하였고 1894년에는 일본 제력을 얻은 흥선대원군이 재등장하며 '갑오개혁'이 시작됐다. 1895년 음력 8월 20일 일본 공사 '미우라 고로', 흥선대원군 그리고 다수의 친일파 세력들의 협조를 통해 망성황후는 건청궁에서 시해당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알고 문화재를 보면 그 안에서의 우리 민족이 일제강점기 시대에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알 수 있다.



<창덕궁>

홍복헌, 한일병합조약이 맺어진 곳

홍복헌은 창덕궁 대조전 동쪽에 딸린 부속 전각이다. 임금이 신하를 만나는 장소로 사용되었으며, 건물 명칭인 홍복(興)·말(말)·복(복)은 '복을 불러 일으킨다'라는 뜻이다. 1910년 8월 22일 조선 왕조의 마지막 어전회의가 창덕궁 홍복헌에서 열렸으며, 이날 전문 팔 조(八條)로 대한 제국의 통치권을 일본에 넘겨주고 합방을 수락한다는 내용의 한일병합조약이 체결되어 대한제국의 국권이 멸망되었다. 한일병합조약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자.

1910년 8월 22일에 조인되어 8월 29일 발효된 일본 제국과 친일파 사이에 이루어진 합병조약이다. 친일파 이완용과 제3대 한국 통감인 데라우치 마사타케가 불법적인 회의를 거쳐 조약을 통과시켰으며, 조약의 공포는 8월 29일에 이루어져 이날 일본 제국 천황이 한국의 국호를 고쳐 조선이라 칭하는 건과 한국 병합에 관한 조서를 공포함으로써 대한제국은 일본 제국의 식민지가 되었다. 한국에서는 경술국치, 국권피탈,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통상늑약으로 외교관을 일본에 쫓기고 일본의 보호국이 되었으며, 청미7조약으로 군대 해산을 담하고, 기유각서로 사법권과 감옥사무까지 잃은 대한제국은 결국 멸망했고, 일제강점기가 시작되었다. 한편 병합조약 직후 현원, 안규설, 이상설 등 일부 지식인과 관료층은 이를 일방적 압력에 의해 이루어진 늑약으로 보고 국권반대의사를 보였고, 한일 병합 직후 14만 명이 독립운동에 참여하였다.

창덕궁 대조전의 부속 건물인 만공 대조전과 역사가 같다. 1405년 창덕궁이 창건될 당시 지어진 건물물로 추정된다. 1592년 임진왜란 때 불탄 것을 1608년에 복구하였고, 1623년 인조반정 때 소실된 것을 1647년(인조 25)에 다시 재건하였다. 1833년 또다시 화재로 소실되어 이듬해 1834년에 재건하였고, 일제강점기인 1917년 창덕궁 대조전으로 대조전은 다시 소실되었다. 소실된 대조전과 부속건물들은 1920년에 복원되었는데 경복궁 교태전을 해체하여 복원에 사용하였다.



<창경궁>

창경궁, 사도세자 사건의 전말

창경궁은 왕과 신하들이 정사를 논하고 공무를 수행하는 '원전'으로 사용되기 위해 지어졌다. 또한 이곳은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죽음을 맞이한 공간이기도 하다. 사도세자 사건은 1762년에 일어난 임오화변으로 알려져 있으며, 사도세자의 아버지인 영조가 사도세자를 폐위하고 뒤주에 가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을 말한다.



<덕수궁>

덕수궁, 인조반정

경운궁으로 불렸던 덕수궁은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서 피신한 후 돌아와 본궁으로 사용되었다. 순종 황제가 즉위한 후 덕수궁으로 변경된 것이다. 덕수궁은 선조의 황비인 인목대비가 폐위되어 귀향한 장소이기도 하다. 이 사건은 조선 왕조의 4대 반정 중 하나인 인조반정으로 이어졌으며, 이때 서민이 광해군과 복인을 죽이고 인조를 왕위에 올리게 된다. 그 결과 복인의 정권이 무너지게 되었다. 서민과 남인은 초기에는 공론을 유지했으나, 남인은 서민의 복벌론의 비탄성정을 비판하여 예능 논쟁을 시작하였다. 이는 혼란을 야기하였고 당파 청자의 각화를 초래하였다.



글로벌 배경으로 한 K-DRAMA



'영이 된 남자'
창덕궁

'형편'
창경궁
창덕궁
경희궁



문화 / 이예빈, 이승아, 허다경



문화유산보존 VS 레고랜드

강원도 춘천시 줄도동의 레고랜드를 짓기 위해 강원도청이 발공 요청을 했다. 발공 허가를 내기 위해 문화재청 직원들이 현지조사를 실시했다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시굴 및 발굴 조사에서 출토된 유물이 신석기 시대부터 조선 시대까지 총 8,025점이며 그 중 3분의 1 정도가 청동기시대의 유구라고 한다. 유구란 무덤, 주거지 등 건축양식을 통해 당시 생활상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2013년 박근혜 정부는 '굴로 밟아 태미파크 건설'을 국정사업으로 추진할 만큼 의욕이 강했고 춘천에 랜드마크를 만들겠다는 강원도의 목표도 뚜렷했다. 결국 문화재위원회 제10차 매장문화재분과 문화재 회의에서는 해당 문화재를 어떻게 보존할 건지 논의하였는데 결국 레고랜드 안에 유적들 보존해 어울리는 콘셉트를 정한 뒤 유물전시관을 건립해 교육적인 목적도 살리겠다는 것이다. 그 뒤로 레고랜드의 공사는 시작되었다. 하지만 여러 사회교수와 고고학자들이 예측했듯 유적 보존은 뒤로 밀려나게 되었다. 유적과 레고랜드의 공존이 결성되고 나서 2019년 3월 레고랜드 착공이 시작됐다. 하지만 레고랜드는 2020년 코로나 19으로 인한 판매량 상황이 악화되면서 2021년에 예정된 오픈이 미뤄지며 오랜 싸움 끝에 5월 5일 문을 열게 되었다. 그러나 유적 보존론 논란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과연 이 방법으로 레고랜드 설립하는 것이 옳은 선택이었을까?

문화재 보존,
공공의 편이

무엇이 옳은 선택일까요?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석동과 창원구 전산동을 연결하는 제2 안민터널(석동터널) 건설현장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삼국시대 유적이 발견되었다. 현재 유적보존과 도로 건설을 앞두고 양측의 의견이 서로 갈리고 있다.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현재까지 삼국시대 목곽묘 748기, 석곽묘 10기, 석실묘 28기 등이 확인되었다. 특히 748기에 이르는 삼국시대 목곽묘는 국내 최대 규모이다. 조사를 맡은 동아시아문화재연구원은 이곳이 삼국시대 진해지역 최대 중심지였던 것으로 추정한다.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창원시 등은 고만에 빠졌다. 유적이 발굴된 상황에서 창원시는 공사를 조기 마무리하는 건 불가능하며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문화재청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600억원을 투입한 상황에서 공사를 중지하는 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입장과 우리나라의 역사를 다시 쓸 수도 있는 유적발굴이 우선이라는 입장이 팽팽히 대치하고 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24년 현재, 제2 안민터널은 3월 20일로 조기 개통을 완료했다. 이처럼 문화재를 둘러싼 여러 이해관계의 대립,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는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조속히 이러한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풍납토성

풍납토성은 문화재 보존과 주민 보상 사이에 갈등을 빚은 대표적인 사례이다. 풍납토성은 송파구에 위치한 둘레 약 2.7km의 타원형 토성이다. 풍납토성은 백제 초기 수도인 위례성으로 추정된다. 전체 면적이 85만㎡이고 토성 안쪽에는 1만3000여 가구가 있다. 1997년 토성 안쪽 재건축 현장에서 토기 등 백제 유물이 나오자 정부는 성곽뿐 아니라 마을까지 보존하기로 했다. 2001년부터 이 지역에 각종 건축 규제를 적용해 지하로 2m 넘게 땅을 파거나 7층이 넘는 건물을 짓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이러한 건축 규제의 보상으로 정부는 주민들에게 3.3㎡(1평)당 3000만~4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하지만 주민들은 보상금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그동안 토성 안과 밖의 집값이 약 2배 차이로 벌어졌기 때문에 보상금으로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것이 힘들기 때문이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정부가 1993년부터 2023년까지 30년간 풍납토성 지역 수용에 쓴 보상금은 총 1조2000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막대한 세금을 들이고도 수용한 주택은 2023년 기준 57%에 불과하다. 이러한 문제에 송파구는 문화재청을 상대로 막대한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2023년 3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으나 현재의 심판 범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문화재 정책의 일관성 차원에서 규제를 풀기는 어렵다고 주장한다. 문화재청에서는 현재 규제는 문화재보호법 등에 따른 것으로 과한 조치가 아니며 설명회도 여는 등 송파구청 및 주민들과 협의하여 풍납토성을 보존·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풍납토성 한 곳에만 매년 문화재청이 쓸 수 있는 보상 예산의 20%를 쓰고 있다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20년 넘게 불거진 풍납토성 문제에 뾰족한 해결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나아가서 문화재 보존과 주민 보상 사이의 갈등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풍납토성에서 발견된 유물

과학 / 이유진, 황보예림, 이에준, 서단아



문화유산을 통해 조상들의 삶과 지혜, 산업과 학문의 발전, 종교의 진화를 배울 수 있다. 문화유산은 우리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현재의 삶까지 이어지는 소중한 자원이며, 이를 미래 세대에게 전해야 한다. 하지만 문화유산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훼손되기 때문에, 그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복원하고 보존해야 한다.

·디지털 복원

디지털 복원은 원래의 문화유산이 전부 또는 일부 소실되어 더 이상 볼 수 없는 상태에서, 전문가들이 상세한 학문적 증거에 따라 함께 복원 설계를 하고, 디지털 시각화 기술을 통해 마치 실재인 것처럼 생생하게 복원하는 것을 말한다. 디지털 복원의 중요성은 문화적, 역사적, 기술적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디지털 복원을 수행함으로써 미래 세대에게 전승할 수 있게 한다. 또한, 디지털 형식으로 복원된 데이터는 지리적 제한 없이 전 세계 어디서든 접근할 수 있게 한다. 그 결과, 박물관이나 도서관을 직접 방문할 수 없는 사람들도 문화유산을 감상할 수 있게 한다. 또한, 디지털 복원을 통해 문화유산을 대중에게 알리고 보존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디지털 복원 기술은 석굴암에도 활용할 수 있다. 2018년 문화재청의 디지털 문화유산 콘텐츠 제작 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된 석굴암 가상현실 개발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는 무선 HMD 석굴암에 직접 들어가서 컨트롤러 없이 모든 부분을 돌아다닐 수 있게 한다. 특히 손에 특별히 제작된 빛을 들고 움직이면, 빛의 위치에 따라 본존불과 조각상이 실시간으로 빛에 의해 변하는 것을 감상할 수 있다. 이러한 디지털 복원은 여러모로 유용하다.

첫째, 디지털 복원은 문화재를 그대로 보존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디지털로 저장된 정보는 자연적 파괴와 인위적 손상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

둘째, 접근성이 향상된다. 가상화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문화재에 접근할 수 있어 이전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한다.

셋째, 교육 측면에서도 유용하다. 디지털 복원을 통해 문화재의 역사와 중요성을 교육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실제로 그 장소에 가서 문화재를 경험해야 할 때, 학생들은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을 활용해 가지 않아도 교육을 더 재미있게 즐길 수 있다.

가상 현실을 활용한 3D 스캐닝 수행 방법

1. 석굴암의 방대한 양을 다양한 각도에서 측정한다.
2. 폴리곤은 평면에서 여러 개의 직선으로 이루어진 닫힌 도형을 말한다. 3D 컴퓨터 그래픽에서는 이러한 폴리곤들이 모여 객체나 모델을 형성한다. 각 폴리곤은 꼭짓점과 모서리로 구성되며, 이는 3D 모델링에서 형태와 구조를 정의하는 기본 요소로 사용되고, 이러한 수치들이 3,000개에서 10,000개로 이루어진 "하이 폴리곤" 3D 모델링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3. 석굴암의 모든 영역을 단위 면적당 5천만 픽셀 이상의 해상도로 촬영하여 텍스처를 구성한다.
4. 이렇게 구성된 텍스처를 문화재에 정밀하게 매핑한다.



중성자 영상 기술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여기서는 '중성자 이미징 기술'과 '외스바우어 분광법'을 소개한다. 중성자 이미징 기술은 중성자의 투과력과 해침도를 이용해 문화유산 유물 내부의 결함을 식별한다. 문화유산의 내부 구조를 조사하는 것은 중요한 요소이며, 문화유산의 특수성 때문에 비파괴 검사는 필수적이다. (비파괴 검사: 물체를 파괴하지 않고 내부 또는 외부를 검사하는 방법).

이 방법들 중에서 X선 이미징은 발굴된 유물의 예비 조사를 위한 대표적인 비파괴 검사 기술이다. 그러나 X선은 원자번호가 높은 물질을 잘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꺼운 금속을 효과적으로 통과하지 못해 정보가 겹치는 경우가 많다. 반면, 중성자 이미징은 다양한 물질의 중성자 투과율 차이를 이용할 수 있어, 원자번호 17 이하의 가벼운 원소로 구성된 유기물질도 감지할 수 있다. 이는 중성자가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핵과 반응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성자를 사용하면 X선으로는 어려운 금속 문화유산의 내부를 더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다.



중성자

중성자 검출기는 섬광체와 CCD 카메라로 구성된다. 섬광체는 중성자와 반응하여 가시광선을 방출한다. 주로 중성자는 리튬과 반응하여 알파 입자를 방출하고, 이 알파 입자는 ZnS(Ag)와 반응하여 CCD 카메라로 감지할 수 있는 가시광선을 방출한다. 중성자 단층촬영은 다양한 물질의 다른 투과 특성을 이용해 샘플의 3차원 분포를 분석할 수 있다. 샘플을 측정하려면 샘플 홀더에 놓고, 외부에서 핵 셔터와 메인 셔터를 연다. 이를 통해 원자로부터 중성자가 나오게 한다. 중성자 빔이 샘플과 반응하면서, 물질의 다른 투과 특성에 따라 중성자의 수가 감소한다. 검출기는 이 감소를 포착하고, CCD 카메라가 샘플의 내부를 비파괴적으로 검사할 수 있다. 이 방법은 내용물을 상세히 관찰할 수 있게 하며, 문화유산 유물뿐만 아니라 연료전지 내부의 전류 밀도를 높이는 작업에도 사용된다. 특히, 수소 연료전지 내부에서 얼마나 많은 물이 생성되는지를 중성자 이미징 장비를 이용해 확인하는데 사용한다.

외스바우어 분광 기법

외스바우어 분광기법은 1958년 독일의 외스바우어가 발견한 감마선의 공명현상(외스바우어 효과)을 이용한다. 핵에서 방출된 감마선이 분석 대상의 동종 원자핵에 흡수되고, 흡수된 감마선을 재방출하여 물질의 화학물 상태, 결정구조, 초미세자기장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외스바우어 효과가 관측되는 원소는 57Fe, 119Sn가 대표적이며, K, Ge, Kr 등 150여 원소에서 관측된다. 이 기법을 통해 광물 및 암석 내 철 원자에 대해서 원자가 상태(Fe^{2+}/Fe^{3+} 비율), 철 화합물 조성 등 다양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외스바우어 분광기법은 현존하는 연구 수단 중 가장 미세한 에너지까지 측정 가능한 분석기술이기 때문에 나노 세계의 물질 연구를 위한 중요한 기술로 꼽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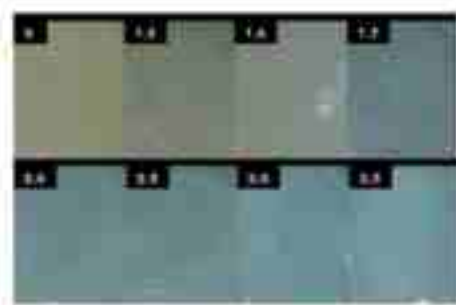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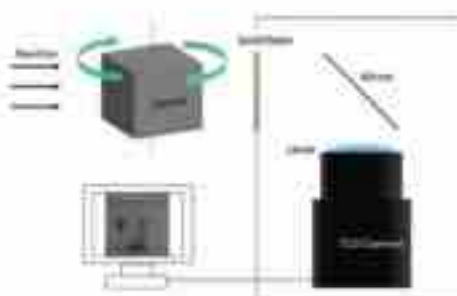
외스바우어 분광기법을 적용한

한국 문화유산 연구사례: 고려청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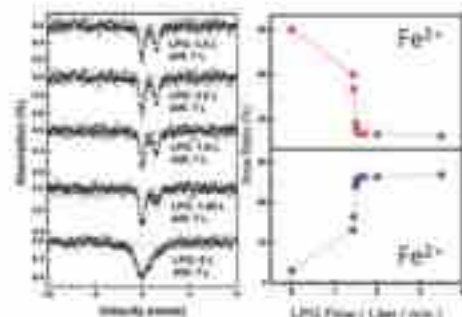
외스바우어 분광기법을 적용한 한국 문화유산 연구는 2010년대 이후부터 시작되었다. 비록 해외에 비하여 도입 단계이지만, 이들 연구는 문화유산 복원을 위한 토양과 유약분석 등에 활용되고 있다. 고려청자의 독특한 비색은 국내외 많은 학자들에 의하여 연구되어 왔다. 발색요인과 관련하여 유약의 화학성분 중 철만 이상을 차지하는 이산화규소가 철과 고온에서 결합하여 형성되는 규산제일철($FeSiO_3$)이 제시되기도 하였지만, 최근 과학적 연구를 통하여 고온에서 환원 조성 원인으로 인한 유약 내 철 이온이 Fe^{3+} 에서 Fe^{2+} 로 환원되는 현상이 청자의 발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철 화합물은 각각 감마선 흡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방사선을 계속했을 시 각각 스펙트럼이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토양과 촉매제로부터 계속되는 전자가(방사선 계속값)의 스펙트럼을 분석하여 철 화합물의 종류와 구성비를 알 수 있다. 이러한 외스바우어 분광 기법의 원리를 이용하여, 고려청자의 유약에서 흑색과 백색을 나타내는 발색성분이 철의 전자수에 따라 달라짐을 확인하였다.

또한 황록색에서부터 하늘색까지 다양한 색상범위 내 철 이온의 정량적 산화 상태 변화를 측정할 수 있다. 위 그림과 같이 연료량의 증가에 비례한 환원강도 상승에 따라 Fe^{3+} 이온이 감소하고 Fe^{2+} 이온의 비율이 증가하며, 그와 동시에 재현 시편의 색상이 황록색에서부터 점차 하늘색으로 변해가는 경향을 스펙트럼과 그래프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사용원료와 소성조건의 조절을 통하여 원하는 색도의 청자를 재조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하며, 역사적 사료와 함께 여러 출토지별 청자의 제작 기술을 비교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로 외스바우어분광이 유용하게 활용 가능함을 지시한다.



Evolutions of celadon color, Mössbauer spectra, and Fe^{2+}/Fe^{3+} ratio by reduction rate



경영 / 한도훈, 전서혜, 박수진

LEAGUE OF LEGENDS VALORANT™

ODA 프로젝트

ODA 프로젝트는 문화유산을 활용하여 개발도상국의 문화유산 보존 및 개발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국의 문화적 영향을 확대하고, 개발도상국의 문화유산을 보호하며, 양국 간의 문화 교류를 촉진한다. 한국은 다양한 개발도상국에서 문화유산 복원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한국의 첨단 기술과 경험을 활용해 고대 유적지, 역사적 구조물, 전통 마을의 복원 및 보존에 기여한다. 또한, 한국의 문화유산 보존 기술과 지식을 개발도상국에 전수하여 현지 전문가들이 문화유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문화유산 중심의 관광 산업을 발전시키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며,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추가 자원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관광 모델을 구축한다. 또한,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문화유산의 가치를 세계적으로 홍보하는 데 기여한다. 한국의 ODA 프로젝트 사례로는 앙코르와트 복원 프로젝트(캄보디아), 미지의 역사적 유적지 복원 프로젝트(베트남), 디지털 문화유산 아카이브 구축(다수 국가)이 있다.

Riot games의 문화유산 보존 노력

다양한 기업과 기관들이 한국의 문화유산 보존 및 홍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글로벌 인기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와 "발로란트"를 개발한 라이엇 게임즈는 주목할 만한 기여를 하고 있는 기업 중 하나이다.

1. 왕실 인장 보관함('보록') 복원:

2022년, 라이엇 게임즈는 조선 왕조의 왕과 왕비의 개인 인장('어보')을 보관하던 상자 '보록'을 복원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이 유물은 왕실의 정통성과 역사를 상징한다. 라이엇 게임즈의 이 귀중한 문화 자산 복원 참여는 널리 찬사를 받았다.

2. 문화재청과의 협력:

라이엇 게임즈는 한국 문화재청과 협력하여 보존 기술을 발전시키고 문화유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3. 보존을 위한 기부:

라이엇 게임즈는 문화 자산의 지속 가능한 보존을 지원하기 위해 상당한 기부를 하여 이러한 보물이 미래 세대를 위해 보호되도록 하고 있다.

문화유산 보존의 중요성

문화유산은 한 나라의 역사, 전통, 문화를 담고 있다. 이러한 자산을 보존하는 것은 우리의 유산을 미래 세대에 전하는 데 필수적이다. 라이엇 게임즈와 같은 기업들은 이러한 보존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며, 한국의 문화유산을 전 세계적으로 보호하고 홍보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화호텔 & 리조트

Hanwha Hotel & Resort는 문화재청 및 한국문화재단과 함께 2023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을 개최한다. 이 캠페인은 Hanwha Hotels & Resorts가 운영하는 국내 호텔과 리조트를 기반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방문자 여권 투어"와 "스토리텔링 투어"가 포함된다. 먼저, 방문자 여권 투어는 76개의 세계유산과 10개의 인류무형문화유산 코스로 구성된다. 대표적인 코스에는 공주, 부여, 논산, 익산의 역사적 유적지를 연결하는 "백제 고도", 조선의 역사를 배울 수 있는 "왕실의 길"이 있다. 스토리텔링 투어는 1박 2일 투어와 반나절 도보 투어 프로그램으로 나뉜다. 1박 2일 투어는 한화리조트 경주를 기반으로 하여, 대동원, 불국사, 석굴암 등의 경주 문화유산을 전문 해설 가이드와 함께 탐방할 수 있다. 특히, Hanwha Hotel & Resort는 자사의 객실을 기부하여 참가자들이 관공지 입장료, 교통비, 가이드 채용비용 등 프로그램 비용만 지불하면 되도록 한다. Hanwha Hotel & Resort의 관계자는 "우리는 문화재 보호와 지속 가능한 여행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문화 자산 보호와 레저 및 서비스 분야를 선도하는 첫 번째 회사가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Hanwha Hotel & Resort는 2005년부터 문화재 보호를 위해 노력해 온 문화재청 지정 1호 문화유산 보호 회사이며, 2011년에는 문화재 보호 분야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LG HOUSEHOLD & HEALTH

문화재청(청장 나선화)과 LG생활건강(대표 차석용)은 전통문화와 문화유산 보호에 크게 기여하는 중요 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단체(대표자)에게 약 5천만 원 상당의 생활용품을 후원하기로 했다.

문화재청은 개인, 가정, 학교, 기업 등 다양한 주체와 함께 공공 참여형 문화유산 보호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기업들은 사회 공헌과 연계하여 기업 기술, 인력, 재정 지원, 직원 자원봉사 등을 통해 문화유산 보호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LG생활건강은 10월에 문화재 보호 협약을 체결하고, 아름다운 왕실 여성 문화의 발굴과 보존,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약 4억 원의 후원금과 자원봉사 활동을 제공했다. 또한, 창경궁(동명전) 보존 및 관리 지원과 함께 미디어 아트 전시회("창경궁의 달빛 아래")와 한국 전통 음악 공연을 아경 특별 행사로 후원했다. 추가 후원 프로젝트로 LG생활건강은 자사의 자원을 활용해 매년 생활용품을 지원하기로 했다. 문화재청은 LG생활건강과 함께 새해에 중요 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단체(대표자)의 문화재 계승 및 발전 노력에 감사의 뜻으로 화장품(후 브랜드)을 전달할 계획이다. 후원 제품은 아름다운 문화유산 보호와 아름다운 생활 문화를 지향하는 기업 철학을 의미하며 선정되었다. 문화재청은 LG생활건강의 문화유산 보호 활동이 건강한 문화유산 보호와 아름다운 문화 가치 향유에 기여하고, 문화유산 분야의 대표적인 사회 공헌이 되도록 계속 협력할 계획이다.



CULTURE / 황예리, 김시원, 조민성, 김현성, 안솔은, 김다은



한국 전통 음악과 케이팝의 연관성

가야금은 한국의 전통 악기이다. 가야금은 크게 정악가야금, 산조가야금, 개량가야금으로 나눌 수 있다.

풍류가야금이라고도 불리는 정악가야금은 주로 궁중음악을 연주할 때 사용된다. 궁전에서 연주하던 음악은 대부분 느리기 때문에 정악가야금의 현 사이의 간격이 넓은 편이었다.

산조가야금은 주로 서민들이 사용하는 가야금이다. 궁중에서 연주하는 음악과 달리 민요, 산조 등 빠른 음악을 연주하기 때문에 현과 현의 간격이 좁고 음역도 정악가야금보다 높은 편이다.

개량가야금은 현대에 새롭게 탄생한 가야금이다. 개량가야금은 케이팝과 서양음악을 융합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18현, 23현, 25현 등 다양한 형태의 가야금이 만들어지고 있다. 개량가야금은 기존 가야금보다 음역이 훨씬 넓고, 현 사이의 간격이 매우 좁아 다양한 음악을 연주할 수 있게 해준다. 이처럼 한국 전통음악은 다양한것들을 항상사리고 시도하도록 하고있다. 앞으로는 우리 전통음악이 어떻게 발전해나갈지 기대된다.



K-POP

여러분들은 케이팝에 대해 잘 알고 있나요?

세계적으로 알려진 K-Pop은 한국의 대표적인 대중음악이다. 케이팝(K-pop)이라는 용어는 'Popular music (대중음악)'과 'Korean (한국적인)'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다. K-Pop은 2000년대에 유명해지면서 한국인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사람들이 K-Pop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다. K-Pop과 다른 장르의 음악과의 가장 큰 차이 점은 K-Pop이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독특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독특한 비트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특색 있는 K-Pop의 매력 덕분에 팝, 힙합, R&B처럼 K-Pop도 이제 하나의 장르가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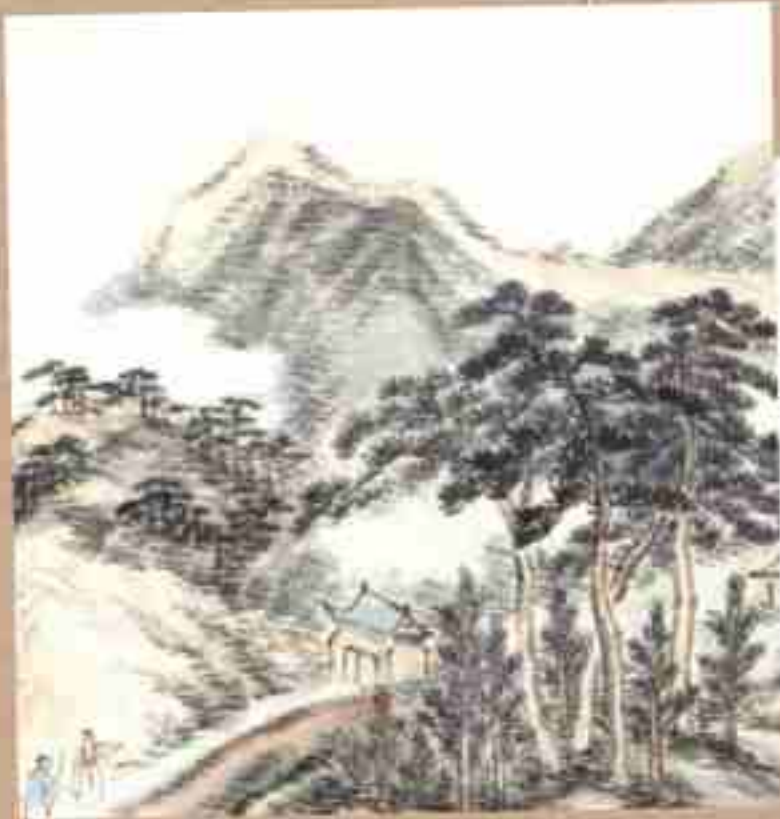
K-Pop 가수들 중에서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싸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한국 가수들이 많이 있다. K-Pop은 그들의 공연을 통해 한국 문화를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다. K-Pop과 한국의 전통음악의 융합의 예증 하나는 블랙핑크의 뮤직 비디오에서 가야금이 연주되는 것이다. 해당 영상에는 블랙핑크는 가야금을 좀 더 전통적인 한국 악기로 연주하는 모습이 담겨 있어 한국을 대표하는 K-Pop의 뮤직 비디오임을 보여줬다.

KON-GLISH
Korean + English



Learning (학습):
In all of security training, anyone that is previously-prosecuted, at least once, will also be provided with the program.
Training is in 10 weeks.
Training (훈련):
Training that is provided to the participants is provided in English and the House.

Watchbook (관람서):
In some cases, a book is provided to the participants.
Event Planning (행사계획):
Event planning is provided to the participants.



자연과 조화를 담다 『산수인물화』



자연과의 조화를 담다. 『산수인물화』

산수인물화는 산수화에서 산이나 강, 나무와 돌 등의 자연경관과 함께 이를 향유하고 있는 인물을 그렸다. 이는 자연에 대한 인간의 친화 관계를 나타내고 관자의 감정이 입을 유도하는 매체로 그려졌다.

또한, 산수인물화는 '대경산수인물화'와 '소경산수인물화'로 구분할 수 있는데, 먼저, '대경산수인물화'는 인물이나 동물이 중시되지만, 배경의 산수가 크고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소경산수인물화'는 인물과 동물이 그림의 중심이 되고 배경의 산수는 작게 표현하는 특징이 존재한다..

왕의 얼굴을 그린다. 『어진』

조선 시대의 초상화는 특정 인물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표현함과 동시에 높은 수준의 회화적 완성도를 보여준다. 또한 유교적 사상 때문에 외형적인 유사함보다는 그 정신과 기품을 전달하는 것을 우선시하여 극세필로 치밀하게 묘사된 초상화는 조선시대 지배층들의 단아하고 정갈한 성품을 잘 드러내며, 간략하게 그려낸 신체는 절제된 몸가짐을 드러낸다.

초상화의 대표적인 예시인 왕의 모습을 그린 어진 또한 주목을 받고 있다. 조선시대 대표적인 어진인 '조선태조어진'은 임금이 쓰는 모자인 익선관과 곤룡포를 입고, 정면을 바라보며 용상에 앉아있는 전신상으로 명나라 태조 초상화와 유사하면서도, 곤룡포의 각진 윤곽선과 양다리쪽에 빠져나온 옷의 형태는 조선 전기 공신상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궁궐이 아닌 민간의 생활을 그렸다. 『풍속화』

옆 그림은 김홍도 필 <풍속도 화첩>으로 조선 후기의 화가인 김홍도가 그린 풍속화이자 인물화이다.

다른 대중적인 인물화와 달리 서민사회의 일상생활 모습과 생업에 종사하는 모습이 구수하고도 익살스러운 느낌을 주며, 대부분의 주변의 배경을 생략하고 인물을 중심으로 그리고 인물들을 웃음 띤 둥근 얼굴을 많이 그려 익살스러움을 한층 더하였다.

이 풍속화는 활기차게 돌아가는 서민들의 일상생활의 사실성과 사회성을 그 생명으로 삼았고, 또한 서민의 일상생활을 주제로 한 것이어서 당시 사회상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서의 역할 또한 독특히 해내었다.



JUNE.20 2024

PJHS44

퓨리아



<이승우T>

감사합니다

이예준 이윤진 김소엽 한도은 김현성 조민성 박수진 황혜리 황보예림
권서혜 이승아 이다경 안슬윤 서단아 김다은 이예빈 김서현 김서원 이승우T





@PJHS44